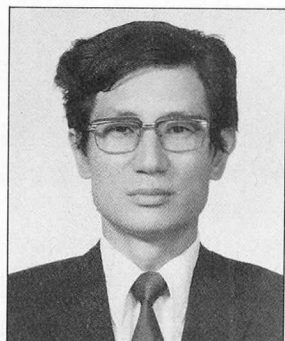


‘언어학’이란 무엇인가

표준말 보급으로 지역方言대립 해소 시급

이현복

서울대 교수 · 음성언어학



언어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언어학자가 하나가 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해방 이듬해에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년동안 우리나라 유일의 언어학과로 존속되어 왔다. 따라서 언어학이란 학문은 많은 사람에게 상당히 생소하고 특이한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언어학의 인구가 적으니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언어학만큼 중요한 학문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언어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에 대한 답변은 그리 쉽지가 않다. 가장 무난한 답변을 한다면, 언어학은 언어, 즉 인간의 말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즉, 말 자체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기술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학의 정의는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직도 언어학의 연구대상으로 하는 언어 자체에 대한 정의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어에 대한 정의는 예부터 여러 학자들이 여러가지 관점에서 내린 바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한가지만 들어서 보기로 한다. 미국의 불록과 트레거라는 언어학자는 인간의 언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언어는 자의적 음성기호로 구성된 체계인데, 이에 의해서 사회집단이 협동한다.” 이 짤막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① 음성 기호 ② 자의성 ③ 체계 ④ 사회집단의 협동수단이라는 네가지 요소가 강조된 정의이다. 여기서 음성기호란 말소리로 운용되는 언어, 즉 소리말의 기본이 되는 소리이며 그러한 소리는 필연적이 아니고 임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가령 말에 쓰이는 소리가 임의적이 아니고 필연적이라면 세계의 모든 언어는 같은 소리를 쓸 것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임의적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이란 말을 영어는

‘man’, 독어는 ‘Mann’, 프랑스어는 ‘homme’, 일본말은 ‘hito’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언어마다 자의적인 음성기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의적인 음성은 무질서하게 결합하여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언어마다 일정한 체계에 따라 운용되며, 이렇게 이루어진 언어는 인간의 협동생활의 바탕이 된다는 내용의 정의이다. 이 정의는 인간의 언어를 상당히 훌륭하게 설명해 주고는 있으나 완벽한 정의라고는 할 수 없다. 다음에 언어의 특성과 쓰임을 좀더 쉬운 말로 살펴보기로 한다.

언어의 본질과 기능

인간의 언어, 즉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한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오는 것도 인간은 다른 동물이 갖지 못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일상의 간단한 표현 뿐만이 아니라 고차원의 사고도 할 수 있고 높은 문명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실감하려면 말이 없는 사회를 상상하면 족하다. 인간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끊임없이 말을 하고, 듣고, 글자를 보고 쓰는 언어생활을 한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인간의 생활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말과 글이 없어진다면 어찌될까? 다른이인 동물의 세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표현의 도구가 없는 그러한 세계는 이미 조직과 체계가 있는 인간사회가 아님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가까운 예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 갔을 때를 상상해 보아도 말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언어란 정상적인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문화유산임을 실감할 수 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표현의 도구만이 아니다. 인간은 말을 통해서 사고를 하고 있다. 언어를 떠나서는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없음에서 우리는 언어와 사고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와 사고, 즉 말과 생각과의 긴밀한 관계는 서양의 학자들도 예부터 느끼고 있었다. 슐레겔은 ‘언어란 인간 정신을 그대로 본떠 놓은 것’이라고 하였고, 라이프니츠는 ‘언어는 인간정신의 반영’이라 하였으며, 또 헤겔은 ‘언어는 생각의 몸뚱이’라 하였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이같이 긴밀하고 인간

이 언어를 통하여 생각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언어 자체가 인간의 사고력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올바른 언어의 구사는 명쾌한 사고력을 기르는 데에 큰 구실을 하는 것이다.

또한 말은 사람의 인간성과 됬됨이를 반영한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할지라도 사람에게 따라서 어휘의 선택이나 발음, 억양 등이 다를 수가 있어서 어떤 이는 자세하게, 어떤 이는 간략하게,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어떤 사람은 거칠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의 교육이나 교양,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말씨와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각자의 인간성과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

언어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 아니라 사고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사람의 인간성과 인격 및 교양마저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과 인격을 올바르게 깨끗하게 가꾸고 사고력을 기르며 원활한 언어생활을 해 나가려면 먼저 언어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깊이하고 언어를 바르고 정확하게 품위있게 쓰도록 해야 하겠다. 말을 다듬고 가꾸는 언어순화운동을 하는 것도 바로 이같은 언어의 본질과 구실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언어학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언어의 본질과 특성 및 그 구실에 관하여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언어학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를 보기로 한다. 언어학은 언어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그 변화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언어 전반에 걸친 과학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언어, 즉 과거와 현재의 언어 뿐만 아니라 죽은말과 미개인의 언어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언어가 그 연구대상이 된다. 또한 언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인접분야도 언어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이미 위에서 설명한 것들은 언어를 여러가지 각도에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 언어학은 관점과 연구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여러 하위 분야로 나뉜다.

일반언어학과 개별언어학

인간의 언어를 일반적으로 연구하느냐 아니면 어느 한 개별언어를 연구하는가에 따라, 일반언어학과 개별언어학으로 구별된다. 위에서 고찰한 언어의 본질 같은 문제는 바로

일반언어학의 중심과제이다. 여기 비해서 한국어나 영어의 구조를 기술한다든가 또는 이들의 변천사를 기술하는 것은 개별언어학에 속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두 분야가 구별되지만 양자는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일반언어학은 어느 개별언어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데 필요한 기본원리와 기준 등을 제공한다. 한편 개별언어학은 일반언어학에서 설정된 명제와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각 개별언어학에서 얻은 지식을 귀납하여 일반언어학의 이론이 설정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일반언어학은 모든 언어에 명사와 동사가 있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언어학은 어느 언어에서는 명사와 동사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그 가설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설을 시인하거나 혹은 부정하기 위해서는 개별언어학은 일반언어학이 제공한 ‘명사’와 ‘동사’에 관한 어떤 본질적인 개념에 또한 입각해 있어야 한다. 이와같이 일반언어학과 개별언어학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공시언어학과 통시언어학

언어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혹은 특정한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언어학과 기술언어학으로 구분한다. 이를 통시언어학과 공시언어학이라고도 한다. 통시언어학은 어떤 언어의 역사적 변화 사실을 조사하고 또 이에 의해서 언어변화에 관한 일반적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언어의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고 두 시기의 언어 사이에서 일어난 변화를 기록한다. 예를 들면, 15세기의 국어와 20세기의 국어 사이에 보이는 변화를 연구하거나 고대영어와 현대영어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기술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비교언어학에 의해서 문헌이 없는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 비역사적인 공시언어학은 어떤 시기의 언어상태를 기술한다. 예를 들면, 15세기 국어문법 혹은 현대국어에 관한 기술들은 공시언어학에 속한다. 특정한 어느 한 시기의 언어 상태를 공시태(synchrony)라고 하며, 어떤 언어의 변천 상태에 있는 것을 통시태(diachrony)라고 한다. 그러므로 공시태는 동일한 언어의 동일한 시기에 속하는 상이한 언어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언어의 모든 현상은 항상 역사적

요인과 결합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공시적 언어현상은 항상 다음 단계로 변화하는 시발점이 되어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시적' '통시적'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언어현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언어학자가 연구상 선택한 관점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공시적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사실을 기술하고 혹은 설명할 때 어느 특정한 언어상태에 속하는 것 이외에 모두 도외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론언어학과 응용언어학

이론언어학은 언어의 구조와 그 기능에 관한 이론을 수립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실용적인 적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서 응용언어학은 이론언어학의 이론과 그 성과를 실용적으로 응용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교육이다. 또한 언어병리학은 언어활동의 장애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발음 장애, 실어증 같은 문제가 여기에 속한다. 이 밖에도 통신공학, 기계번역, 정보이론, 과학수사, 음악, 시, 연극 등의 무대예술 등 언어학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다.

언어학의 하위분야

언어학은 언어의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분야로 나뉜다.

① 음성학 : 말의 소리를 연구한다.

언어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말소리를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연구하는 분야가 음성학(phonetics)이다. 말소리의 발생면과 청취면을 모두 다루며 음성의 정밀한 분석과 기술을 위해서는 음성분석기와 같은 실험기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실험음성학 분야에 속한다. 국어의 표준발음교육이나 외국어 발음교육, 언어치료 등에도 음성학의 지식이 필수적이다.

② 음운론 : 말소리의 기능을 연구한다.

말의 소리가 언어전달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그 체계를 연구하는 분야가 음운론(phonology)이다. 음운론은 동일한 언어에서 의미가 다른 두 형태소를 구별하는 음성적 특징을 연구한다. 예를 들면, 우리말에서 '바크'와 '파크'는 'ㅂ'과 'ㅍ'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ㅂ'과 'ㅍ'은 같은 양순파열음이지만, 무기/유기라는 음성적 특징에 의해서

구별된다.

③ 문법론 : 언어의 어법과 문법적인 구조를 연구한다.

크게 보아서 언어의 조직원리를 기술하는 분야가 문법(grammar)이다. 전통적인 문법론에 의하면 문법은 크게 형태론(morphology)과 통사론(syntax)으로 나뉘어진다. 형태론은 형태소(morpheme)(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최소의 유의적 단위)의 결합에 관해서 기술하는 것이고, 통사론은 형태론에서 기술된 형태소의 결합체를 기초단위로 해서 그것

〈언어학 분야 참고문헌〉

- ▲김방환, 신익성, 문양수, 이현복(1982) 「일반언어학」·형설출판사
- ▲김방환(1978) 「일반언어학개요」·일조각
- ▲김진우(1985) 「언어-그 이론과 응용」·탑출판사
- ▲남기심, 이정민, 이홍배(1979) 「언어학개론」·탑출판사
- ▲이현복(1987) 「한국어의 표준발음」·대한음성학회
- ▲이현복(1982) 「음성학-이론과 실제」·탐구당
- ▲허웅(1981) 「언어학-그대상과 방법」·샘문화사

이 더 크게 결합되어 문장을 이루는 것을 기술한다. 또한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음운의 변화를 연구하는 형태음운론(morphophonemics)이 포함되기도 한다. knife에 복수어미를 결합시키면 knives가 되어 '-f'가 '-v'로 변하는데, 형태음운론은 바로 이러한 것을 다룬다.

문법의 개념은 시대와 학파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문법의 체계도 다양하다. 한 예로, 변형생성문법의 목적은 언어능력의 해명에 있다. 이 문법은 일련의 구조기술을 생성하고 그 하나하나에 심층구조, 표면구조, 심층구조의 의미해석, 표면구조의 음성표시가 포함된다. 이것은 생성문법이 통사부와 의미부와 음운부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의미론이 문법에 통합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밖에 음운에 관한 것이나 어휘(형목)에 관한 것도 문법의 일부로 생각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문법이나 다른 학파의 문법관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특

색이다.

④ 어휘론 : 낱말의 형태와 의미 구조 및 쓰임을 연구한다.

어휘론은 낱말의 파생, 의미, 용법 등을 다룬다. 또한 어휘를 체계화할 수 있는가도 연구한다. 전통적인 의미론(semantics)에서는 역사적, 심리적 의미연구가 그 중심과제였으며,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었다.

⑤ 방언학 : 지역적인 사투리의 차이를 연구한다.

방언학(dialectology)은 한 언어의 지역적인 분열과 그 차이를 연구한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표준말과 경상, 전라, 평안 등의 방언 분포와 그 특징을 연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⑥ 문체론 : 언어 표현의 개인적인 특성을 연구한다.

한 개인 혹은 한 작가의 작품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언어적인 특징을 미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분야를 문체론(stylistics) 또는 언어미학이라고 일컫는다.

⑦ 역사언어학 : 언어의 역사적 변천과 언어간의 친족관계를 연구한다.

역사언어학은 각 시대의 문헌을 단계적으로 더듬어 올라감으로써 그 언어의 변화과정을 규정하고 한 언어사실 혹은 그 언어의 구조적 변화를 연구한다. 그러나 문헌이 없는 有史 이전의 변화는 비교언어학(comparative linguistics)의 방법에 의해서 연구한다. 비교언어학의 목적은 같은 계통의 여러 언어를 비교함으로써 공통조어를 재구하고, 여기서 여러 언어가 분열하여 변천한 과정과 역사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한반도의 언어현실과 문제점

위에서 언어학의 여러 연구분야를 소개하였으나, 이러한 연구분야는 자칫 학문을 위한 학문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즉, 현실언어와는 직접 관계가 없이 이론적인 연구에만 흐르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다. 그러나 언어의 연구는 항상 현실언어, 우리가 일상 쓰는 말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음에 언어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우리말의 여러 양상을 소개한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쓰이는 한국어는 여러 면에서 대단히 혼란된 상태에 있다. 크게 보아서는 분단된 남과 북의 언어에 차이가 심화되어 있고, 작게 보아서는 한국 안에서의 언

어 역시 질서와 통일을 외면하고 이탈과 문란과 혼란으로 달리고 있어서 우리 겨레의 말과 글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예부터 우리나라의 표준말로 되어 있는 서울 지역의 말을 제쳐놓고, 평양말에 함경도 사투리가 가미된 말을 소위 '문화어'라 하여 이를 북한 뿐 아니라 전 한반도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 나름의 철자법을 만들고 사전을 편찬하며, 우리에게서 의미와 형태가 생소한 많은 낱말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8·15광복 이후 이렇다할 뚜렷한 언어정책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서구민주사회가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언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압적인 정책은 없고, 다만 학술·사회단체 주도의 언어연구와 국어운동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다.

현재 한국의 언어생활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발음의 혼란, 무질서한 외래어의 수용으로 인한 어휘체계의 문란, 외래어의 한글표기 및 로마자 표기법의 혼란, 어법의 혼란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지역방언의 진출 및 난립과 표준말, 표준발음의 퇴조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국민총화를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감정이 지역방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준말의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나 현실적으로는 표준말의 권위가 약화되고 표준말 교육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의 언어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만일 표준말과 표준발음의 보급과 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서지 않는 한 언어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며, 지역감정 촉발제인 지역방언간의 대립도 지속되리라고 예상된다.

이와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말의 순화와 표준화를 통한 언어생활의 이상화를 기하기 위하여도 우리는 먼저 우리말에 관한 언어학적인 기초 연구와 분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소개한 언어학의 각 하위분야가 기본이 된다. 우리나라의 언어학이 발달할 때 우리의 언어생활은 그만큼 더 윤택하여질 것이고 우리의 문화는 더욱 꽃피게 될 것이다.